



“세계가 인정한 WORLD CLASS SAFETY KUMC” 세계를 향한 힘찬 출발!

손창성 의무부총장 취임, 의료원 신성장 동력 추진 시설확충 프로젝트 완수, 교육기능 강화할터 2010년 의료원의 새로운 비전 만들어 선포할 예정

병원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저마다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 선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몸 부풀리기식 '규모의 경제'가 대세를 이루는 최근의 의료계 동향을 살펴보면 과연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100년 대계의 이정표가 되어줄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의료원(이하 KUMC)의 핵심가치가 되어줄 비전은 무엇일까? 최근, 취임한 제 10대 고려대의료원 손창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암병원원은 최근 JCI 인증획득을 단 한번만에 성공함으로써 국내의료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인증획득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해 국내 병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의료원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을 대략 살펴보면 의과대학 의학과

건립,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신축 등을 비롯한 하드웨어 확대를 비롯해 우수인재 영입, 국제과제의 성공적인 수주와 우수한 연구성과 획득, 의료원 산하기관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3개의 대학원, 보건과학대 및 3개의 부속병원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KUMC의 경우 부속병원 모두의 JCI 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치를 내걸었다. JCI 인증은 이미 의료 수준과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이제는 규모와 의료수준만의 경쟁이 아니라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한 경쟁이야말로 진정 환자들이 바라

는 것임을 깨닫고, 안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료계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환자 안전이란 측면으로 병원간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UMC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실천과 국제적인 병원으로의 도약 ▲우수인재 양성 ▲수준높은 연구성과의 발표 등 여러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JCI 인증획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하는 것이 상의 것을 해내는 잠재력 있는 의료기관이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지난 10월 20일 취임사를 통해 고려대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의료원의 경영방침 및 향후 청사진을 포함한 포부를 밝혔다. 

취 임 사



손창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존경하는 고려중앙학원 김정배 이사장님,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 그리고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문영목 의대교우회장님과 이향에 여의사교우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 천여 고려대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막중한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첫걸음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더욱 뜻 깊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의료원에 큰 업적을 많이 남기신 전임 오동주 의무부총장님을 비롯한 보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성장과정을 함께하며 오늘의 의료원을 이루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인술의 씨앗이 되고 의학발전을 선도해온 고려대의료원의 '제10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려대의료원은 그동안 엄청난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 해외에서도 놀라운 우수한 연구업적을 무수히 발표함과 동시에 세계 톱클래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걸출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안암병원원은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JCI 인증을 올해 단 한번만에 통과하는 쾌거를 통해 우리 의료원의 숨겨진 저력을 당당히 드러내었고, 구로병원은 그랜드오픈을 발판삼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의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경쟁병원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안산병원원은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병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밤을 낮같이 밝히는 열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업적을 내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보건과학대학

은 그 동안 내실을 다지고 다져 이제 저 푸른 창공으로 막 날아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환경은 열악해져서 우리가 피땀으로 키워온 우리 의료원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려대의료원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귀와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의료원 구성원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가슴에 품어, 의료원 발전을 이루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은 전체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면에 이어

존경하는 고려대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저는 의료원의 변화와 혁신을 완성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이라는 크나큰 뱃머리에 감히 서기가 두렵기는 하지만, 교직원 여러분께서 저와 더불어 더운 가슴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려대의료원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의 메디컬 콤플렉스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내야만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기공식을 마친 의과대학 의학관 신축을 비롯하여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신축, 구로병원 교수연구동 증축, 그리고 안산병원 본관증축 등 국제적인 의료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세상에 떨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특성화 클리닉을 여러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 의료원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들 특성화센터에서 중증도가 높은 3차 질환 치료에 임상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차별화 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원 산하기관의 분권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 학장님과 병원장님께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대학별, 병원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로, 의과학 연구의 중심인 의과대학과 보건과학대학을 축으로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연구중심의 메디컬 클러스터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의 의료산업화의 주요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육의 강화입니다. 고대의료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튼튼한 교육기관의 틀에서 교육, 연구,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이 진료와 연구 부문에 비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진 의학교육시스템강화를 통해 교육 부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 해부터 시작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과 해외유수의대의와의 교류협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과대학과 의학 전문 대학원, 보건과학대학, 임상 치의학 대학원, 보건대학원, 그리고 각 부속병원 등에서 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이루어 세계적인 "명품 인재" 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향후 2년은 의료원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의료원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을 담은 장기적인 안목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005년에 발표된 의료원의 비전에 예시된 계획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향상되고 발전된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는 5년간의 목표이므로 내년 2010년에는 보다 향상된 비전으로 모든 열정을 쏟고 전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려대의료원 모든 구성원의 단합된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고려대의료원이 이 땅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 10. 20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창성

Changseong Son

특 집

JCI 인증획득, 안암병원 병원평가준비팀

병원역사상 큰 성과이루는데 큰 공헌

국내 대학병원, 노하우 전수받기 위해 러브콜 줄이어

고려대 안암병원이 최근 JCI인증을 획득해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 으로 공인받았다. 안암병원은 이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했고 결국 인증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신개정판으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의료기관이 됐다. 이번 평가에 적용된 JCI인증 3차수정판은 약 1,200개의 평가항목을 가중치 없이 전 항목에 걸쳐 완벽하게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물론, 이번 인증은 안암병원 전 교직원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서서 각 부서와 개개인을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부서가 있었으니 바로 병원평가 준비팀이다. JCI 인증획득 T/F팀장인 이상학 부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팀원은 그야말로 노심초사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번 결과가 어땠을까? JCI 평가단은 인증획득을 공표하기 전에 JCI준비팀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의 활약상에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그들을 소개한다. 



박유선

1. COP
 - 환자치료, 고위험환자치료
2. MMU
 - 약물관리
3. QPS
 - QI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
4. IPSPG
 - 국제환자안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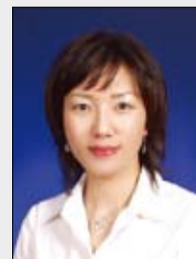
김은희

1. ACC
 - 진료의 접근성 및 연속성
2. PFR
 - 환자의 권리, 동의서, 장기이식, 연구
3. PFE
 - 환자와 가족의 교육
4. IPSPG
 - 국제환자안전목표



이만희

1. GLD
 - 의료원과 병원 경영진의 책무
2. MCI
 - 병원 내 정보의 관리 (환자 의무기록포함)
 - 내·외부 기관과의 communication
3. JCI Coordinator



진도연

1. FMS - 시설안전관리 (시설, 보안, 재난훈련, 의료기기, 유해물질, 화재안전 유틸리티 시스템 등에 관한 FMS)
2. SQE - 교육, 인사 관리 (직원기본교육, 신입직원 및 직무교육, 직무평가, 심폐소생술 교육관리)



곽미정

1. JCI 평가 총괄
2. 타부서간 업무 조율
3. QPS 총괄



이영순

1. AOP
 - 환자 평가
 - 진단 및 병리 검사
 - 영상 검사
2. SQE
 - 의사 자격, 진료권 및 평가 관련 업무



유정화

1. ASC
 - 진정, 마취, 수술
2. PCI
 - 감염의 예방, 관리
 - 격리방법과 손씻기
 - 질항상과 관련된 감염관리 계획
 - 직원교육

척수손상환자, 진단-치료-퇴원 후 관리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척수손상클리닉

척수손상 클리닉, 특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원

척수손상클리닉은 척수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리닉이다. 척수는 동력선과 같다. 척수는 척추(등뼈)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으며 뇌와 신체의 말초부위를 연결하는 주요 의사전달 통로로 뇌에서 내린 명령을 신체의 말초부위까지 전달하고 거꾸로 신체말초에서부터 느낀 각종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즉,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척추골절 및 전위, 척추 및 척수의 염증, 척수의 종양으로 인하여 척수에 손상을 입어 전달통로가 끊기게 되면 경수 손상에서는 상지와 하지, 흉부 이하의 손상에서는 하반신의 마비 또는 근력약화를 보이고 감각기능의 손실, 배변 및 배뇨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정상생활에 큰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때 척수손상클리닉은 환자를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재활치료는 환자의 척수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환자에게 가능한 계획을 세워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치료 장면

| 척수손상 초기의 재활치료

- ▶관절가동범위를 유지시키는 운동을 통해 마비된 상 하지관절의 구축을 방지하고 적절한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 ▶육창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특수한 방석이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 ▶신경인상 방광 및 장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다.
- ▶호흡 재활치료로 사지마비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의 합병증을 방지한다.

| 보행훈련

- ▶운동효과만을 위한 보행훈련: 보조기를 착용하고 짧은 거리를 걷거나 이동 동작을 돕기 위한 훈련
- ▶실내에서의 기능적 보행훈련: 실내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 할 수 있으며 실외로 나가거나 장기간 보행할 때는 의자차를 사용함
- ▶실외에서의 기능적 보행: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의자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본격적인 재활치료

- ▶침대나 의자차에서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간다
 - ▶환자의 기능에 합당한 의자차를 타고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 ▶손의 기능이 좋지 못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특수한 보조기구를 통해 손의 기능을 증가시킨다.
 - ▶기능적 가동성을 위한 훈련을 한다.
- (예, 침대에서 돌아눕거나 일어나 앉기, 침대와 의자차간 옮겨앉기, 의자차에 차량으로 옮겨타기, 실내외에서 의자차 다루기)

| 퇴원 후 관리

척수손상환자는 퇴원 후 정기적으로 진찰하여 합병증 발생여부에 대한 검진 및 검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하다. 또한 퇴원 후 집에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부딪히는 일상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도움말 | 재활의학과 권희규 교수 문의 | 외래 (02)920-6471

이부서 이사람

실제 병원 현장 방물케 하는 최신 의학교육 시설 고대의대 임상수기센터를 아시나요?



임상수기센터 김중규 실험기사

2010년, 서양의학 도입 100년만에 이루어지는 사상 첫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고대의대도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들의 실기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실제 병원 현장을 방물케 하는 최신 교육시설을 갖추고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 의학교육 시스템으로 의대생의 100%합격을 목표로 최근 문을 연 임상수기센터의 실험기사 김중규 선생은 중앙혈액내과 김병수 교수, 소화기내과 김창덕 교수를 모시고 “임상진료입문”, “임상진료평가” 라는 과목을 통해 임상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제 환자에게 해볼 수 없는 기본 술기들을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실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전반적인 스케줄 및 장비를 관리, 교육준비에 이르기까지 센터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숨은 일꾼이다.

의대 4층에 위치한 임상수기센터는 가상환자 시뮬레이터(SIMMAN)를 이용하여 임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여러 환자 케이스 상황을 만들어 현실감 있는 종합적인 임상의학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 교육은 물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의료원직원 BLS 교육, 소방학교학생 BLS교육, 모의환자(SP)훈련, 훈련된 모의환자를 이용한 신경과 학생실습등 다양한 교육들이 임상수기센터에서 진행될 정도로 명품교육의 전당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상시 개방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인체모형을 이용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눈 코 뜰새없이 바쁜 일과속에서도 김중규 선생은 자신이 준비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흥

미와 재미를 느끼고 또 수업이 끝나고 밝은 모습으로 실습실을 나갈 때 가장 행복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훌륭한 의료인의 교육 현장에 자신이 일조하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센터의 숨은 일꾼으로서의 바람과 목표도 확실했다. 김중규 선생은 “임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상황들을 훈련하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이 임상수기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임상의학실습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몇몇 대학들은 확장공사를 통하여 새로운 공간에 최신시설을 갖춘 임상수기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 각 의과대학에서 그만큼 중요한 교육공간임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고대의대의 임상수기센터도 언젠가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교육장소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포부를 묻는 질문에 김중규 실험기사는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실습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교수님들과 상의하고 보완해가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드러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다가 보다는 활기차게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도 젊음과 패기를 배운다는 김중규 실험기사. 항상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주는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김중규 실험기사에게서 겸손함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중규 실험기사는 “올해 첫 시행 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한 만큼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아자~아자~화이팅!!” 이라며 선전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의 | 임상수기센터 (02) 920-6235

병원소식

안암병원 JCI 인증 기념 축하 행사 성료



안암병원은 9월 17일 오후 5시에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을 비롯한 의료원 주요 보직자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CI 인증 기념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

에서는 JCI 인증 관련 공로자 포상 및 슬로건 공모 수상자를 발표 했다. 공로부서에는 JCI팀이, 공로자는 간호부 조운수 팀장 등 9명이 선정됐다. 안암병원이 획득한 JCI 인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된 슬로건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권진영(전산운영팀), 우수상 2명 김홍건(영상의학과), 이재환(시설팀), 장려상 3명 류한성(총무팀), 우광석(재활의학과), 이상록(방사선종양학과) 등 6명이며 수상자들에게 상금(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각 20만원, 장려상 각 5만원)이 주어졌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5시30분에는 4층 심혈관센터 앞 주차장에서 JCI 인증 획득을 위해 수고한 안암병원 직원들을 위한 만찬이 진행됐다. 이기수 총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병원으로 인정받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매우 자랑스럽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얻은 것”을 축하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안암병원의 JCI인증획득은 직원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단 한번의 평가로 완벽하게 통과한 것은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대안암병원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비롯해 오는 10월 17일에는 등반대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대안암병원에 JCI CEO 방문



안암병원은 9월 22일 오후 4시 병원장실에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JCI 최고경영자 Ms. Karen Timmons 와 JCI 아시아태평양지역부장 Dr Paul Chang 이 직접 안암병원의 JCI 인증을 축하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기 위한 자리였다. Ms. Timmons 는 “안암병원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병원이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배울 점이 많았다”며 안암병원 평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Dr Chang 은 “안암병원의 JCI 인증을 축하한다. JCI 인증을 준비하는 다른병원들에게 인증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 들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안암병원과 JCI가 추구하는 공통가치를 재확인했다. 손창성 병원장은 “JCI 인증 기준에 애매한 점이 많았지만 환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고대병원과 JCI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JCI CEO로부터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JCI Practicum에서의 강연을 부탁 받기도 해, 양 기관의 협력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빛 모범! 의료원 최고의 모범직원



〈2009년 의료원 개원기념 포상자〉

◆ 총장상

의료원 노사협력팀 최현수
안암병원 의료정보팀 강주희

◆ 의료원장상

의료원 홍보팀 최정민
안암병원 간호부 서정자, 이서진

◆ 의료원장상 (전공의)

안암병원 내과 최혁순, 비뇨기과 태범식, 병리과 이정현, 인턴 김희주

◆ 병원장상

안암병원 원무팀 윤숙녀, 약제팀 곽진, 건진센터 조규은

의료원은 개원을 기념해 모범직원 3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대상자는 의료원 및 각 병원 포상선정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모범직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순금메달(총장상 5돈, 의무부총장상 3돈, 병원장상 2돈)이 수여됐다. 

'재활공학 분야의 세계적 리더' 김종배 박사 강연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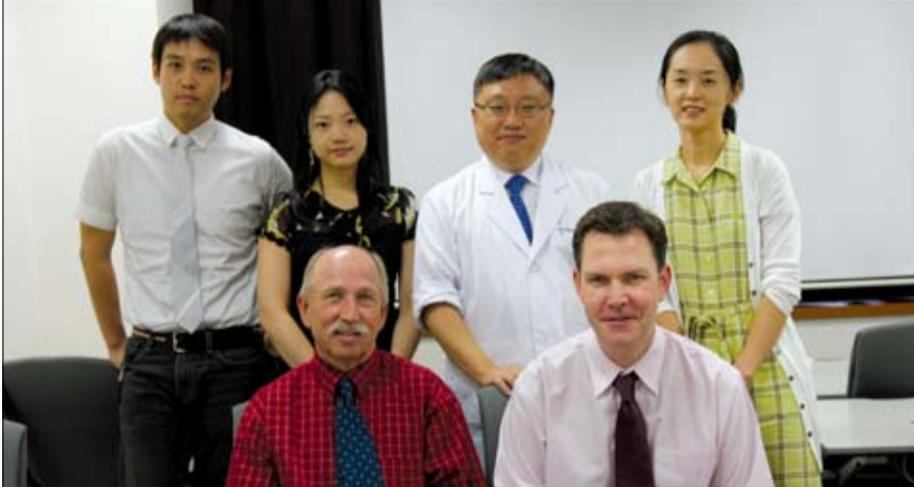


안암병원은 9월 22일(화) 저녁 5시 중회의실에서 美, 피츠버그대학교 보건재활과학대 김종배 박사를 초청해 '휠체어에 부착된 컴퓨터와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박사는 휠체어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가다. 그는 휠체어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면 바로 편리하게 개인용컴퓨터(PC)를 사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수를 수시로 체크하며 보건전문가가 건강상태를 바로바로 원격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등을 휠체어에 통합시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김종배 박사는 24년 전인 1984년, 카이스트(KAIS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던 시절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수 6번이 손상되면서 순식간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이후 열정적인 노력으로 2005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재활공학센터 과제책임자에 올라 편당을 통해 연구과제가 채택되는 등 미국 사회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병원소식

김병수 교수,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신약 연구 FDA 승인



안암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중앙혈액내과 김병수 교수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FDA Inspection을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상 처음으로 받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며 그에 대

한 통보를 미국 FDA로부터 10월 19일에 서면으로 확인했다. 김병수 교수가 이번에 Inspection을 받은 연구는 GSK가 개발한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chronic ITP) 치료 신약인 eltrombopag(Promacta®)에 대한 'An open-label repeat dosing study of eltrombopag olamine (SB-497115-GR) in adult subjects, with chronic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본 안암병원과 아산병원만이 참여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결과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357호에 'Eltrombopa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었으며 이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암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 2 곳만이 연구참여기관으로 명시된 바 있었다. 본 연구에 안암병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병수 교수는 chronic ITP와 관련된 주제로 2,000년 8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혈액학술대회에서 'Travel Award'를 수상한 바 있었다. 현재 김병수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임상시험사업단 인정 안암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인광호 교수) 임상시험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안암병원 및 고려대학교 IRB 위원 및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과 KAIRB 정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임상시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New Start “고객 만족” 당신을 평생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친절리더 오명옥(53병동 수간호사)은 안암병원 건강진단센터 팀원을 대상으로 10월 7일 오후 5-7시까지 8층 중 회의실에서 ‘고객중심의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건강진단센터 자체 친절교육 결과를 지난 9월 7일 수검자 예약, 접수 및 문진의 모습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자세와 표정, 대화내용

과 토의사항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비디오 영상으로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10월7일 New Start “고객 만족”을 주제로 피드백 교육에서 비디오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각 팀별로 구성하여 고객응대방법을 교정하며 좋은점과 부족한 점, 개선할 부분을 재교육하였다. 금번 건강진단센터에서 처음 실시한 비디오촬영을 이용한 자신의 고객응대 모습을 보며 진행된 재교육은 토의 과정과 친절교육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점점의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고객응대 시 각 상황을 설정 친절서비스 및 친절 check-list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없는 배움, 제7기 호의아카데미 개교



의료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끝없는 배움의 장, 제7기 호의아카데미가 시작됐다. 의료원은 지난 9월 16일(수) 구로병원 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제7기 호의아카데미 입학식을 갖고, ‘의료정책 및 마케팅’을 주제로 3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은 구로병원과 안암병원에서 각각 진행

되며, 원내교직원 및 협력기관 직원 총 60여 명이 참석한다. 강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건의료정책 방향 ▲세계의료현황 ▲브랜드 마케팅 ▲JCI인증과 국제경쟁력 등의 내용으로 여섯 번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학식에서 호의아카데미 교장 이태수 교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의료정책,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미래의 의료시장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발전의 원동력이자 스스로의 발전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친절교육” 실시



간호부는 9월 21일 대회의실에서 보호요원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간호부 서비스 향상위원회에서 “친절한 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 및 실전연습을 통해 고객 응

대시 더욱 친절한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만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보호요원은 “바쁜 업무 속에서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친절할 고객 응대법에 대해 다시 환기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비스향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간호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대 안암병원-한국화이자와 MOU체결



안암병원은 지난 9월 8일 오후 4시에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과 MOU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MOU체결식에서는 고대 안암병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의 교류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로써 안암병

원의 임상연구와 R&D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지속적인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 중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번 상호협약을 통한 활발한 임상연구로 안암병원과 화이자가 국내 의학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인광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의 한국 내 역량 강화 및 확대가 기대되며,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서 JCI 인증의 의미



2009년 7월 18일에 고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받았다. 준비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과연 JCI 인증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인증의 감격은 더욱 크다. 과연 인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환자의 안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병원 내 사고에 대해 그동안 의료진들의 반응은 인재 또는 불운이라고 여겼었다. 수술 부위가 바뀌면 주치의와 집도의의 부주의를 나무랐고 약화 사고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응급실에 들어 온 외상 아이를 치료할 때 잠자는 약을 먹이고는 처치 전 후로 아이를 관찰하는 의료진은 아예 없었고 그런 시설이나 장비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의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기준에는 시스

템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의 안전을 우선 시 하는 올바른 시스템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JCI 인증 프로그램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한 병원 지도자들의 해안이 있었던 것이다. 수술 전 날 수술 부위를 환자와 주치의의 간 호사가 함께 모여서 해당 부위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고 마취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은 JCI 인증 후 바뀐 우리의 병원 모습이다. JCI 인증을 준비하면서 나는 문득 문득 유럽의 공학이 생각나곤 했다. 바닥을 청소하는 분들은 항상 청소 구역 주변에 조심하라는 삼발이를 치고 물걸레질을 한다. 모르고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건물에서야 넘어지고 약간의 부상을 입고 말지만 병원이 어디 그런가? 순간의 부주의가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의료 행위와 병원의 시스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의 우리 병원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주목할 일은 JCI 인증을 통해서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규칙을 잘 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병원은 병원의 시스템에 대한 규범화된 원칙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 규범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JCI는 병원의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살피고 그 규칙대로 실천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이는 여태껏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혁신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의 일반적인 근무 지침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각인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JCI 인증 후 고대 안암병원은 한국인들의 관점(규모의 경쟁)에서는 아직도 소위 말하는 Big 5 안에 아직은 들지 못할지는 몰라도 전세계 사람들이 바라 볼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병원 두 곳 가운데 하나라고 기억된다는 것이다. JCI 인증은 우리 의료계가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을 여는 첫 장이 될 것이다. 규모가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니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관점의 전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은 JCI 인증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대 병원의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적정진료관리위원장 박종훈(정형외과) 교수

가을의 사색과 낭만을 오토캠핑으로

여행 정보



오토캠핑카로 떠나는 자라섬의 가을 여행, 자라섬 오토캠핑 모습

차에 '집 한 채'를 싣고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행. 바로 오토캠핑의 가장 큰 매력이다. 작은 보급자리 하나 만들고 화롯가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고, 게으르게 캠핑을 즐기다 살며시 일어나 쏟아지는 별을 감상할 수도 있다. 오토캠핑 열기가 대단하다. 오토캠핑의 매력은 '고생을 편하게 한다'는 데 있다. 고생은 집 떠나 다른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편함은 자연과 하나가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라섬에서의 오토캠핑 어떨까?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기도 동북부의 관문인 경기도 가평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은 '자라섬'. 이 섬은 북한강에 떠있는 섬으로 20여만평 크기에 큰 돌과 자갈로 이루어 졌다. 자라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섬이 물에 잠겼다가 나타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섬 중앙부위에 자연수목원, 미루나무, 버들강아지들이 있으며 약 4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 갖가지 야생꽃과 어우러져 체육시설 자연수목 휴양림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라섬 내에는 환상의 강변데이트 코스와 수목 산책로, 자전거 도로, 예쁜 정원, 북한강 수상레저축제와 짚썰매 페스티벌, 먹거리 축제,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많다.

28만 3000㎡ (8만5755평)의 오토캠핑장은 캠핑트레일러 뿐만 아니라 모빌홈(통나무집)들이 있다. 또한 레저차량이나 승용차를 곁에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도 있다. 북적거리는 휴가철을 지나 자라

섬 오토캠핑장은 한가로운 여유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 뒤로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아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휴식공간에 짐을 풀고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산책해도 손색이 없다. 곳곳에는 물잠자리가 휘휘 하늘을 유영하고, 풀잎 향기는 바람에 실려 도시의 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주변에는 농구장과 잔디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어 놀거리도 풍부하다.

캠핑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캠핑카 여행의 백미는 바로 밤 시간이다. 가을 풀밭에 누워 밤하늘을 배경삼아 밤새 수다를 떨며 시원한 맥주 한잔에 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별을 감상하고, 함께 온 친구나 가족들과 평소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시간은 캠핑카 여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보너스다. 그래서일까? 오토캠핑장 내에서는 밤늦도록 자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오토캠핑은 호텔이나 펜션에 비해 저렴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을 둔 가족단위로서는 최적의 여행이다. 올 가을 자연 속에서 하루 밤을 지새우고 싶다면 캠핑카 여행을 적극 추천한다. 자라섬은 우리에게 인간의 때문지 않는 순수함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여행의 즐거움과 낭만 그리고 사색의 공간을 제공한다. 풍요로운 가을만큼 여유롭고 자유분방한 자라섬에서 초가을 주말 밤에 풀벌레소리와 함께 오토캠핑을 즐기며 넘서리한 사색과 낭만의 공간으로 이번 주말을 보내면 어떨까? 

글 · 사진 | 원네기자 강용길 / koreatzp@korea.ac.kr



아름다운 자라섬의 풍광

신종 인플루엔자, 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신종플루 사망률 계절독감보다 낮아

지난 4월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신종인플루엔자 A(H1N1)v는 9월말 현재 세계적으로 약 34만 명을 감염시켰고 적어도 약 4천 1백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 하였다. 국내의 경우 5월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8월말 약 3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9월말까지 약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달 동안에 급격한 환자수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10월 12일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사망률은 약 1.1%, 국내의 경우 약 0.1% 정도로 계절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같거나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로 나누며 인체 감염은 주로 A형과 B형이 일으킨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는 유전자 변이를 많이 일으켜 여러 아형으로 나뉘지며 조류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5N1)로 불린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A(H1N1)v 이 나타나기 전까지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 A(H3N2), B3가지 형이 주가 되었고 매년 계절 독감에 대한 백신은 이 3가지 균주에 대한 백신이었다.

신종플루, 공포의 대상?

신종인플루엔자가 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는 과거의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류는 20세기에 있어서 3차례 큰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의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2천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1957년 발생한 아시아독감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2N2)의 출현으로 인하여 약 1-4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세 번째는 1968년에 발생한 홍콩독감으로 약 1-4백만명의 사망을 유발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의 유행이었다. 이와 같이 유행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는 인구 집단에 발생하여 대규모 사망을 초래 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돼지에 유행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인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조류에 발생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되어 인류에 면역이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출현 하였기에 전 세계가 긴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망률과 중증도를 보았을 때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WHO는 20세기 말부터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하여 준비하였고 지난 유행 시기와는 다른 의료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보아 위의 대유행과 같은 엄청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인플루엔자란 병 자체는 사망률 보다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수업일수의 결손, 청장년층에 있어서는 근무 또는 작업일수의 손실이라는 사회적 영향이 큰 질환이고 고위험군인 소아나 노인, 만성질환자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의 악화나 2차적인 세균성 감염 등 합병증을 주로 유발하는 질환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개인 보다는 사회적 영향이 큰 질환이다.

감염 증상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 신종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 있을까? 신종인플루엔자의 증상과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또는 독감과의 증상은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발열과 기침 이후통이 주된 증상이며 약 1/4에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7.8도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이 있는 경우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명명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환례 정의를 하고 있다. 본원에 내원하여 확진된 환자의 증상은 발열과 더불어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으며, 인후통, 기침, 콧물/코막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였다. 진단에 있어서 현재 2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신속항원 검사로 약 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민감도는 약 40-50%정도이며 특이도는 9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이 진단법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또는 B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A에 양성인 경우 약 90% 이상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인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다른 하나는 확진 검사 방법으로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real time RT-PCR(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이다. 대개 1-2일이 소요된다.

경각심 갖되 슬기로운 예방 중요

치료는 현재 항바이러스제인 oseltamivir와 zanamivir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oseltamivir 내성 균주에 의한 인체 감염이 2예보고 된바 있어서, 향후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균주의 출현과 이들 균주에 의한 유행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백신이 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은 국내에서 약 11월 중순 이후에나 보급되리라 생각되어진다. 신종인플루엔자 역시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전파방식을 가져 주로 비말이나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므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등이 백신접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으로는 최선책이라 생각된다. 최근 한 승객이 버스에서 기침을 한다고 하여 승객들에 의해서 버스에서 하차되었다는 외신 보도는 일반인들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계절인플루엔자의 경우 이제까지 이런 공포심이나 경각심 없이 지내오던 것을 생각하면 감염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나 지금까지 신종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나 중증도를 고려시 과도한 대응과 공포심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통상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서 4월까지로 이 기간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발생할 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염병이 발생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막고 정부와 민간이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움말 | 감염내과 손장욱 교수
외래 | 02) 920-5410



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이 달의 친절직원 66병동 서진경 간호사



안암병원은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40분에 원장실에서 '이달의 친절직원' 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친절직원에는 서진경 간호사(66병동)를 포함한 4명의 교직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진경 간호사는 환한 미소로 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친절직원에는 정형외과 이동기 전공의, 53병동 이수연 간호사, 66병동 서진경 간호사, 고객서비스 팀 이현정 직원 등 4명이 선정됐다. 친절직원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10만원)과 친절직원 배지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안암병원은 원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 관리시스템(VOC)을 통해 접수된 민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과 아웃백동묘역점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